

일본동맹기독교단 선교 130주년 기념선언

<들어가는 말>

우리 일본동맹기독교단 산하 교회, 교역자, 성도 일동은, 선교 13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이 시점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대망하며 새로운 헌신의 다짐을 이곳에서 선언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

우리 일본동맹기독교단의 발자취는, 1891년 11월 22일, 북미 스칸디나비아 얼라이언스 미션에서 파송된 15명의 선교사들이 요코하마에 상륙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하시고, 선교의 사명으로 부르시며, 그 부르심에 응답할 뜻과 열정을 허락하시고, 한 마음으로 매진하도록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과거의 전쟁협력과 우상숭배의 죄악을 회개하며,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견지하는」¹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의 책임을 통회합니다.

우리는 교단존립의 목적을 「『성경신앙, 선교협력, 합의제』에 따른 일치를 기초로,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선교명령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고백하며,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고, 적극적인 개척전도와 견실한 교회형성에 의한 국내선교 및 『일본과 아시아와 세계』를 시야에 둔 해외선교를 추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² 사역에 힘쓰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였음을 정직하게 인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현재>

하나님께서 사랑을 담아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는, 죄와 비참함 속에서 탄식하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세계 곳곳에 막힌 담이 솟아오르고, 단절이 확대되고, 모든 영역에서 대립과 분단 그리고 격차가 두드러졌습니다.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동일본대지진과 그 이후 각지에서 발생한 재해는, 이 시대에 대한 우리의 선교와 봉사의 본연의 자세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에 걸친 천황대물림은, 이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되묻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³의 세계적 만연의 와중에서, 우리들은 스스로의 삶과 교회의 본연의 자세를 돌아볼 것과 교회의 개혁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이 세상을 주시합니다. 목자없는 양과 같이 매우 쇠약해져 있는 양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길잃은 양을 찾아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¹ 일본동맹기독교단교헌(교회헌법)전문

² 상동

³ COVID-19

<우리가 가야할 길>

선교 130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는 참 왕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이 분 이외의 어떤 것에도 결단코 무릎 꿇지않고, 이 분만을 주로 고백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⁵고 하신 약속의 성취가 되시는 성령께 이끌리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사용하고 모든 기회를 살려, 교역자와 성도가 하나되어 복음선교에 힘쓰겠습니다.

우리는, 종래의 「국내선교·국외선교」의 틀을 넘어 민족, 언어, 세대, 직업, 사회의 모든 영역의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초청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세대의 생명을 사랑하고, 그 존재를 존귀히 여기며, 젊은이와 어린이들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드러내며, 지역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폭력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는 땅에 정의와 평화가 세워질 수 있기를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자각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며, 이웃과 함께 살아갈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에 가져오기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세상의 빛과 땅의 소금으로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아는 자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당신께서 사랑하신 세상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오늘, 당신께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를 오늘, 이곳에서 새롭게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9월 23일

일본동맹기독교단 교역자, 성도 일동

⁴ 요한복음 14장 31절

⁵ 사도행전 1장 8절